

농촌체험행사로 세마리토끼 잡다

군산시, 쌀 우수성 홍보·판로 확대·매출 증대 등 1석3조 효과

군산시가 수도권에서 군산쌀을 급식하는 자매결연 10여개 학교 학생들을 초대하여 농촌체험을 통해 군산쌀을 알리고 쌀의 판로를 열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에서는 지난년부터 수도권에서 군산쌀을 급식하고 있는 자매결연 1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찾아가는 농촌체험행사'를 진행해 왔다.

'찾아가는 농촌체험행사'를 통해 친환경 우렁이농업으로 재배하는 신동진벼와 농작물 재배용기들을 해당 학교로 공수하여 직접 기르며 수확

할 수 있도록 도와 군산쌀의 우수성을 실제로 확인시켜줘 홍보효과와 함께 쌀의 판로를 여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1회차에 걸쳐 육구농협과 협업을 통해 수도권 자매결연 학교의 학생들을 군산시 친환경 농업지구로 초대하여 농작물 재배·수확 등의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노원구 태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1개 학교에서 3,200여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벼 베기, 흙터·호롱이 탈곡, 쌀 받아질기, 떡메치기 등을 체험

하며 수확 이후 쌀의 가공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도록 구성했다.

군산의 친환경인증쌀을 급식하는 학교와 앞으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농촌체험활동은 군산시와 육구농협이 손을 잡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해당 학교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군산쌀의 평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 향후 급식학교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역사 교육은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면서 군산시로의 농촌체험을 원하는 학교의 러브

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벼 추수체험을 통해 미래세대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농산물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농촌에 대한 추억을 담아가는 체험행사가 쌀 판로 확대와 미래 소비자육성과 맞물리면서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수도권 학교 농촌체험 활동지원 결과를 평가 하고 내년에는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새로운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농업인이 웃는 농촌체험'의 묘미를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 '근대골목길 Festival' 행사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월명동 구영2길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군산근대골목길 페스티벌 아듀!”

행사 이틀간 가족단위 관광객 등 2만여명 찾아

군산시의 가을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인 '근대골목길 Festival' 행사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월명동 구영2길 초원사진관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24일 밝혔다.

'근대골목길 Festival'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풍요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복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의 특성과 이미지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 지역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는 한국결성카우트 군산지회 최선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정현숙, (사)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군산지회 조명례, 한중여성교류협회 군산지회 이영석, 미성동 주민센터 이연숙 계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리 공연으로 골목대장들과 추억의 노래를 연주하며 퍼레이드를 앞세워 불거리를 제공했으며 근대미술사, 저글링 쇼, 아코디언 연주 악극단, 재즈댄스, 플래시몹 공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추억의 골목문화체험을 제공해 세대간 소통과 근대역사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2만여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행사장이 북적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행사를 계기로 군산을 찾아온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군산의 다양한 관광지로 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하루 더 머물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를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청신호

'코엔에프' 분양계약 체결

올해만 17개 기업 입주

익산, 든든한 행정지원 약속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해 말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24일 국내 기업 코엔에프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만 벌써 17개(7만5,802㎡)의 식품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

주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엔에프는 김제에 2011년에 설립해 커피, 홍삼, 모과 액상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6년 3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MOU체결 후 꾸준히 투자유치상담을 진행해 분양 계약체결에 이르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중국 등 수출을 고려하고 있으며 4,311㎡(약 1,304평)규모의 필지를 분양받아 홍삼·생강·유지차 캡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코엔에프 임종목 대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입주기업의 기술지원까지 가능한 최적의 투자조건이어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R&D, 수출, 원료 등 각종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현율 익산시장은 "코엔에프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원료수급, R&D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은 물론 중국수출까지 구상중인 기업인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여성한마음대회 성료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전명자)는 24일 월명체육관에서 관내 14개 여성단체 회원 및 시 거주 여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군산시 여성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랫동안의 난타공연과 명지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유아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 유공자 표창, 2부는 어울림한마당(명랑운동회), 경품권 추첨 순으로 진행했다.

지역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는 한국결성카우트 군산지회 최선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정현숙, (사)한국여성문화생활회 군산지회 조명례, 한중여성교류협회 군산지회 이영석, 미성동 주민센터 이연숙 계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하수 수질, 수돗물과 동급

공공처리시설 4곳 분석 결과

철저한 관리 오염방지 최선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곳에서 처리하는 하수의 올해 3분기 수질을 분석한 결과 수돗물과 같이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700톤/일 이상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수질 원격감시장치(TMS)가 설치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수질 측정값이 전송되고 있다.

또 시 자체적으로는 월 1회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입수 및 방류

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익산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1만톤/일)의 경우 총인(T-P) 법정방류수질기준인 0.2mg/L 보다 훨씬 낮은 0.037mg/L로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총인(T-P) 유입수 평균 수질 2.503mg/L 대비 98.5%의 효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는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처리한 방류수 일평균 8만7,000톤 전량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맞은편에 위치한 유천생태습지 유자용수로 공급하고 있어 물 재이용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관리를 통하여 법정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익산시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 전국체전 준비 '척척'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지난 9월부터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24일 운영반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종합상황실장 김철모 부시장 주재로 열린 추진상황 보고회는 상황실 구성 후 처음 갖는 보고회로 13개 운영반별 그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철모 부시장은 "매일 종합상황실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안대 체육대회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서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대 체육대회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내년 신규 건축물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24일 오전 부시장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2019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미래성장동력 구축과 지역경제발전, 복지증진 사업 등의 국가예산사업 발굴활동에 주력해 20건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관련 사업과 역사문화도시로서 익산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역사, 문화, 관광관련 사업 등 지역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한 일자리, 역사문화, 복지, 교육, 교육, 안전, SOC 등 핵심과제 연계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라북도와 관계부처를 수시 방문해 사업 설명을 통한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펼쳐 부족재원 확보와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은 "신규로 발굴된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 후 사업추진 논리를 보강해 사전행정절차와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발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대형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